

충남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토대 구축해야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중발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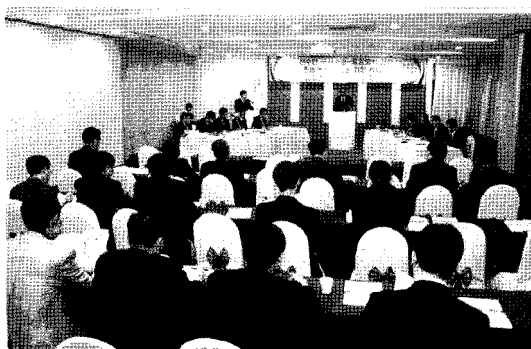
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청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지역산업평가단장,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점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 준비 박차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브랜드 전략 강조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함께 10월 29일 대전스파피아호텔에서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충남연 연구진,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천수만 중심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관광지 7개소, 관광자원 개발계획 10개소 등 총 12조 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동기술공사 박찬일 전무이사는 “천수만 권역은 태안, 보령, 서산, 홍성 등 4개 시군이 접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와 가까운 지역으로써 충남도와 서해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천수만 지역으로의 접근성 분쇄, 다양한 관광기능의 혼재, 계절적 관광성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천수만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과 환경친화적 관광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는 “동북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1995년도에 41백만명으로 전세계 관광객의 7.8%였으나 2010년 104백만명으로 10.5%, 2020년엔 216백만명인 14.4%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천수만 지역 역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고유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대구 부사장 역시 “천수만 지역은 첨단산업레저형 기업도시와 웰빙특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이라면서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 서해안 관광의 거점 기능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천수만 관광 브랜드화 등의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재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실장의 주재로 배재대 박근수 교수, 청양대학 최영문 교수, 그리고 충남도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발전연구, 청양 꽃피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 고추대 뽑기 등 농촌봉사활동으로 연구생활에도 활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청양 꽃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춘복)은 10월 22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에 위치한 ‘꽃피마을’에서 연구원 관계자, 마을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마을 경쟁력 강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충남발연은 지난 2007년 3월 꽃피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매년 봄에 열리는 ‘맥문동 축제’에 맞춰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구매해 왔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담긴 ▲농촌마을 및 산업체 등의 교육 및 컨설팅과 정보 공유, ▲농촌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꽃피마을을 함께 찾은 충남발연 임직원 60여명은 고추대 뽑기, 은행털기, 밤 줍기 등 봉사의 땀을 쏟으며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충남발연 고승희 박사는 “잠시 농촌 일손을 도왔다고 해서 농촌의 현실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고 말했다.